

제429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2일(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류제출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1.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3
2. 서류제출요구의 건 25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추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자로 우리 위원회의 박형수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나경원 위원님이 보임 되셨습니다.

새로 보임하신 나경원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전에 인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미애 위원장님과 함께 법사위 위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국회가 지금 굉장히, 국회법에 따라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정리할 수 있는 곳이 법사위원회니까 법사위원회에서 우리가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 정신에 따라서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국회 법사위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국회 운영에 있어서 이 비정상적인 것을 좀 정상화하고 비상식적인 것을 상식화하고 이렇게 해서 누구만의 국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법사위가 그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말씀하면서 저는 여야의 합의 정신이 존중되는 국회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정상화 되고 상식화되는 것의 첫발자국이다 생각을 하면서 합의를 위한 것은 역시 간사 간에 합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간사 선임의 건을 좀 올려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말씀하면서 그냥 의사진행발언 같이 해도 될까요?

○위원장 추미애 인사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의 진행 순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면 인사말씀으로 일단 저는 앞으로 우리 국회 법사위원님들하고 정말 합의에 따른 국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좀 같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의사진행발언은 조금 이따가 다시 제가 그러면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오늘 회의는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의사진행을 하면서……

○나경원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전에 주시는 겁니다.

○곽규택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셔야지요. 여야가 회의를 하는데 간사 없이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배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회의의 운영에 관한 거니까 미리 의사진행발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의사를 방해하는 발언 같아요.

○신동욱 위원 무슨 의사를 방해할 해요? 의사진행발언을 발언권을 얻어서 하겠다고 하잖아요! 이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추미애 오늘이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이곳에서……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진행하고 갑시다. 걱정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배숙 위원 무슨 방해예요? 거기야말로 방해하는 거지. 간사를 선임해야지요.

○신동욱 위원 아니, 왜 의사진행발언을 안 줘니까?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은……

○조배숙 위원 이 일정에 대해서 합의하지도 않았어요. 합의하지 않은 일정인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장경태 위원 합의할 간사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1인이어도 상임위 운영 가능합니다. 간사 1인인 상임위 없었습니까?

○곽규택 위원 그러니까 간사를 선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간사를 안 뽑아 주면서 간사가 없어서 못 하겠다는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지금 초등학생입니까? 간사를 안 뽑아 주면서 간사 없어서 합의 못 했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지금? 간사를 뽑아 주세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간사 의결을 안 했는데 어떻게 간사랑 협의합니까? 간사가 없습니다. 간사가 법사위에 현재 1인만 있습니다.

의사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용민 위원** 지난번 유상범 간사도 여러 번 회의 진행 이후에 선임됐어요.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성윤 위원** 뭘 잘못해요?

○**나경원 위원** 아니, 간사 없이 상임위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6선의 위원장 아니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국회를 운영합니까?

○**송석준 위원** 법사위에 간사도 없이 어떻게 진행을 해요?

○**서영교 위원** 간사를 자기네 마음대로 바꾸고 와서 무슨 얘기에요!

(장내 소란)

1.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26분)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 제1항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8조제6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과 관련하여 9월 4일 오전 10시에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귀가 멀었어요? 잘 안 들려요?

○**위원장 추미애**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 소란)

다시 묻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나경원 위원**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국회입니까? 아니, 이렇게 합니까, 국회를?

○**위원장 추미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무슨 의결을 해요, 이의 있다니까!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 제1항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이의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곽규택 위원** 이의 있다니까 무슨 회의를 그렇게 해!

○위원장 추미애 아니, 그러면 이의가 있다고 하셔야지 각자 떠드시면…… 이의가 있으면 누가 한 분 정확하게 이의가 있다고……

곽규택 위원님 이의 있으시고.

나경원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나경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의가 많지요.

○위원장 추미애 그다음에 송석준 위원님 일어서서 이의가 있다고 큰소리로 말하시는 데 앉으셔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신동욱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조배숙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조배숙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곽규택·나경원·송석준·신동욱·조배숙 위원님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토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에서 이의 있다고 했는데!

○위원장 추미애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장경태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 본회의 표결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바로 표결하면 어떻게 해요, 이의 있다는데!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발언 기회도 안 주시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조배숙 위원 왜 의사진행발언도 안 줘니까?

○위원장 추미애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토론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론을!

○위원장 추미애 손을 내려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왜 발언을 못 하게 해요, 발언을!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 제1항 검찰개혁 공청회……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김용민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들어가서 얘기하세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잘 안 들리시나봐! 잘 안 들리니까 나온 거 아니야!

○김용민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토론이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만드시고 있잖아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뭐가 불가능해! 이렇게 진행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토론을 해야 돼요, 토론을!

○위원장 추미애 자, 토론합시다, 그럼.

(장내 소란)

돌아가세요.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장경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48조에 의거하여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점거한 적 없어요, 지금. 상의한 거지.

○위원장 추미애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찰개혁 공청회 채택에 대해서 반대……

○나경원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도 안 해 주는데, 의사진행발언은 해 주고 하는 거지요!

○장경태 위원 155조(징계)에 의해서 위원장석을 점거하면 윤리위 심사를 받지 않고 징계 가능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이 안건에 대해서 그러면……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권도 안 주고! 안건 협의를 했어, 뭐를 했어! 이런 식으로 국회를 어떻게……

○박은정 위원 내란 옹호한 것 사과나 하세요! 뭐 의사진행이예요!

○나경원 위원 조선 의원 가만히 앉아 있어! 조선 의원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박은정 위원 왜 반말하세요!

○나경원 위원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박은정 위원 뭘 아무것도 몰라!

○나경원 위원 조선 의원이 어디서 지금!

○서영교 위원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곽규택 위원 이의 있으면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토론을!

○박은정 위원 사과하세요! 사과하시라고!

○위원장 추미애 토론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곽규택 위원님부터……

(장내 소란)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 아무것도 모르는 조선은 앉으라 그러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 초

선 누구 있습니까, 초선?

○박은정 위원 모욕감 느낍니다! 사과하세요! 사과하시라고!

○장경태 위원 초선은 국회의원 아닙니까?

○위원장 추미애 광규택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박은정 위원 초선 의원에 대한 모욕감 느낍니다. 사과하세요! 왜 초선한테 모욕감 느끼게 말합니까? 초선 의원 말하지 말라고 한 것 사과하세요!

○광규택 위원 조용히 하세요, 좀! 지금 토론하잖아요.

○박은정 위원 그리고 본인이 윤석열 내란 옹호한 것 사과나 하시라고!

왜 초선 의원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광규택 위원 옛날에 박지원 위원도 저보고 그랬어. 저 그 말 많이 들었어요.

○박은정 위원 나경원 위원님, 사과하세요!

제가 초선 의원인데 사과하시라고!

○광규택 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 뭐니까? 저 박은정 위원, 옛날 법무부장관 하실 때 데리고 있던 저 감찰관 하고 있는 것 보세요, 지금.

○박은정 위원 초선 의원 말 못 하게 한 것 사과하시라고요!

○위원장 추미애 광규택 위원님 발언 시작됐습니다.

발언해 주세요.

○광규택 위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법사위가 22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쟁점을 가지고 격돌한 적은 있습니다만 최소한 여야 간에 있어서 간사 선임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까지 무리한 회의를 진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지금 야당 국민의힘의 간사 선임을 어제까지만 해도 안건에 포함시켰다가 이것을 갑자기 또 빼 가지고 간사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이런 기괴한 정말 엽기적인 회의진행을 하시려고 하는데 가만 두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간사라고 하는 것은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야 간에 협의를 하는 협의 창구입니다. 그런 창구 없이 위원장께서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법사위 자체를 야당을 무시한채 여당 혼자서 지금 진행하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여러 위원이 손을 들었는데 마치 못 보신 것처럼, 안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6선 법사위원장이 보여야 될 품격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안 주서 가지고 위원장님의 독단적인 의사진행에 대해서 제 토론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경원 위원님이 국민의힘 간사로 보임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도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구실로 해 가지고 지금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직전 법사위원장이었던 이춘석 전 위원장, 지금 꼬리 자르기로 해 가지고 민주당 탈당해 가지고 무소속으로 있는데 그 무소속이 된 법사위원을 빼고 지금 민주당 위원으로 다시 사보임하게 해 달라 그 요구를 하서 가지고 그게 안 들어지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 간사 선임까지도 안건에 안 올리고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희한한 사고를 쳐 가지고 스스로 탈당을 한 상황인데 어떻게 그것하고 국민의힘의 간사 선임하고를 연계를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입장을 밝히셔야 되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지난번 회의 때도 일방적인 회의 진행 그리고 도대체 야당 위원에게도 보여 준 적 없는 희한한 자료를 들고 와 가지고 특검에서 고발 요청했다, 자료 혼드셨지요? 그 자료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보지도 못한 자료예요. 그것 특검하고 내통하고 있는 자료인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입장을 다 밝히시고요.

지금 이런 독단적인 회의 진행에 대해서는 윤리위 제소를 포함해서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할 겁니다. 제발 6선에 국회의장까지 하려고 하셨던 그 경험과 품격을 법사위원장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 나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주시지요.

○**김용민 위원** 아니, 토론시간이에요, 토론.

○**나경원 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여러분들은 국회의원들이시고요 국회법에 따라 주셔야 됩니다.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법 제102조에 명문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의제 외에 위원장을 모욕 주거나 겁박하거나 하는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민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께서 방금 허가받지 않은 의제 발언하지 말라고 하셔서 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우리 법사위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토론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토론으로 신청을 하긴 했지만 광규택 위원이 이 사안에 대한 토론을 전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실상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허가해 주시면 3분 내에 의사진행발언 성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각 당에서 한 분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동욱 위원** 그거는 간사끼리 합의할 문제고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제한하시면 안 되지요. 그거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회의는 간사끼리 합의하는 게 아니고요 간사와의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저희 간사를 뽑아 주시라니까요. 왜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이 마음대로 횡수를 제한합니까?

○**김기표 위원** 아니, 초선 의원이라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리고 간사는 간사 선임을 의제로 올려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종전 고지해 드린 데 따라서 의사일정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렸기 때문에 위원장의 방침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저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간사를 뽑아 주시라니까요.

○김기표 위원 여기서선 초선 의원은 잘 알고 얘기해야 됩니다. 초선 의원이 잘 모르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송석준 위원 왜 간사를 선임 안 하는 거예요.?

○김용민 위원 위원님들, 제 발언시간이니까……

○김기표 위원 초선 의원이니까 모를 수 있으니까 잘 알고 하세요.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신동욱 위원 잘 모르지만 저는 이것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어떻게 간사를……

○김용민 위원 신동욱 위원님, 제 발언시간이니까 경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검찰개혁 공청회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저의 생각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의사일정이 협의가 안 됐는데 무슨 본건을 토론을 합니까?

○김용민 위원 검찰개혁 공청회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 간……

○위원장 추미애 김용민 위원님, 잠깐만요. 진행에 협조해 주시고요.

토론 아니고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저희 야당을 먼저 주시지요.

○위원장 추미애 서영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서영교 위원 지금 저기를 멈추고요?

○위원장 추미애 예, 여야 각각 의사진행발언 한 분 하시고……

○신동욱 위원 아니, 그것 제한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 횟수를 제한을 합니까? 그거는 간사를 뽑아서 협의하게 해야지요.

○위원장 추미애 박규택 위원님은 이미 발언을 하셨으니까, 김용민 위원님은 이따가 토론에 관한 발언 해 주시고요.

의사진행발언으로 서영교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넣어 주세요.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지요?

○박규택 위원 방해한 적 없어요! 간사 선임을 안 해 주는데 무슨 방해야, 방해는!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국민의힘이 이렇게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송석준 위원 서영교 위원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서영교 위원 발언하고 있는 내내 손가락질을 하고 떠들어 대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조치를 취해 주시고 징계도 내리셔야 합니다.

○신동욱 위원 떠드시는 건 서영교 위원이 1등이에요!

○서영교 위원 아니, 지금 오늘 하는 의사진행은 검찰개혁, 반대합니까? 검찰개혁 하자고 공청회 하자는 이 계획서를 채택하는데 무슨 방해가 이렇게 많은 건지……

○신동욱 위원 반대합니다, 공청회 반대합니다.

○송석준 위원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려면 간사 선임을 먼저 해야지요.

○서영교 위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방해하고 있는 저 위원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곽규택 위원 아니, 안전에 반대했다고 징계하라는 게 말이 돼요, 지금! 무슨 공산주의야!

○서영교 위원 국민의힘은, 법사위에 와서 반말을 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윤리위 제소시켜 주십시오. 초선 의원이 이 현장에서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는데 반말을 하는 국민의힘은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곽규택 위원 무슨 발언권을 받아서 발언을 해요! 발언권 없이 이야기했지!

○서영교 위원 곽규택 위원 반말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징계를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이제 새로운 세상 왔어요.

○곽규택 위원 무슨 새로운 세상이에요!

○서영교 위원 그리고 여러분, 좀 더 진중하게 협의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와서 이때다 그리고 의사진행을 방해하지 마세요. 그동안 해 온 일이 무엇이었는데 여러분 돌아보시고 왜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지, 왜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이 된 겁니까? 여러분이 잘못 해서 우리가 다수당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 선출을 받은 권한입니다. 그런데 소수당이라고 자꾸 떼쓰고 소리 지르고 방해하면 되겠습니까?

○신동욱 위원 뭘 때를 써요. 간사 뽑아 달라는 게 무슨 때입니까?

○곽규택 위원 아니, 간사 선임하자는 게 무슨 때를 쓰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행정실장은 이럴 때는 어떻게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잘 검토해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시길 바라면서……

위원장님, 오늘 저희 이 법사위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제 내란의 잔재는 확실히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내란을 옹호하고 그 주변에, 관저에서 윤석열 체포영장 공무집행을 방해했던 자들이 지금 여기 와서 또 전체 검찰개혁부터 방해하고 있습니까? 검찰개혁은 왜 하는 겁니까?

○나경원 위원 말 좀 적절히 하세요.

○송석준 위원 그런 자들이 누구입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요!

○곽규택 위원 검찰개혁 필요 없는 것 하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거지요!

○서영교 위원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작태에 대해서 낱알이 국민들께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원 위원 ‘자들’이 뭐야, ‘자들’이! 우리가 무슨 내란세력이야! 어디다 내란 얘기하고 있어!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일단……

○나경원 위원 일단 의사진행발언권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발언권 주세요. 왜 의사진행발언을 못 하게 합니까?

○신동욱 위원 발언권을 주세요. 입틀막하시면 안 되지요.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권을 여기 주셨으니까 저희를 하나 주셔야지요.

○위원장 추미애 계속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겁니까,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안 따르시고?

○나경원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의 말을 끊으면서까지 그렇게 자꾸 의사진행발언 달라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시겠습니까?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회의 진행을 똑바로 하세요!

○곽규택 위원 그러니까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권은 무조건 주셔야지요.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오늘의 의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 공지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위원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김기표 위원 좀 들어 보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충분히 협의할 시간을 드렸습니다.

○신동욱 위원 무슨 충분히 협의를 해요?

○곽규택 위원 아니, 간사도 없이 누구하고 협의를 해요.

○위원장 추미애 그것은 귀 당의 내부 사정입니다.

○송석준 위원 간사 선임을 먼저 해야 협의가 되잖아요. 간사가 없는데 무슨 협의가 돼요?

○김용민 위원 박형수 간사랑 했어요, 박형수 간사랑.

○곽규택 위원 간사 선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추미애 갑자기 나경원 위원님이 이 위원회에 보임돼 오셔서 마치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시는 모양인데……

○곽규택 위원 아니, 갑자기 오는 게 어디 있어, 갑자기 오는 게!

○위원장 추미애 여기는 전투장이 아니고요. 법안에 대해서, 의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송석준 위원 전투장으로 만드는 게 위원장님 아니세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이 오신 거는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장 추미애 이미 주어진 의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준비해 오시고 토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주시기로 했잖아요. 여당 한 번 쫓으니까 야당 한 번 쫓아야 되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토론하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아까 곽규택 위원님이 의제에 관계없는 의사진행성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의제 관련된 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토론한 거예요, 토론!

○위원장 추미애 의사진행발언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광규택 위원님과 서영교 위원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에요. 토론한 거예요, 토론.

○위원장 추미애 다시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검찰개혁 공청회에 대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시고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주세요.

○송석준 위원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 겁니다.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주시고 토론을 진행할 수 있게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의사진행을 잘해 주십사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 거예요.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주시고 그다음 토론을 진행……

○위원장 추미애 의사진행발언은 아까 광규택 위원님이 이미 충분히 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을 먼저 해 달라는 것.

○광규택 위원 토론한 거예요, 토론!

○송석준 위원 아니, 그거는 의사진행을 위한 토론성 발언이었지요.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안 하시면 김용민 위원님 토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주시기로 했잖아요.

○나경원 위원 저희한테 발언권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오늘 저희가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는 시간입니다.

검찰개혁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개혁 4법이 민주당안과 조국혁신당안이 우리 법사위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그런 사법시스템을 새로 만들겠다, 형사사법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발언 중이지만 이거는 지금 정상적인 토론이 아닙니다.

○전현희 위원 의사 방해하지 마세요,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중단시켜 주시고 간사 선임부터 합시다!

○김용민 위원 그래서 어떤 안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필요가 있어서 공청회를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청회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직전의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위원과 제가 계속 소통해 왔습니다. 그래서 진술인 6명을 저희가 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 측에도 진술인 3명을 추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추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민의힘에서 신속하게 추천하면 되는 것이고 이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되는 일입니다.

○송석준 위원 간사 선임하면 할 거예요.

○김용민 위원 검찰개혁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께서도 검찰개혁안을 직접 발의하기도 하

고……

○신동욱 위원 아니, 그런데 뭐가 무서워서 간사를 안 뽑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한다며?

○김용민 위원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안을 토론회도 하고 발의까지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신동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가 무섭냐고요. 그러니까 간사를 왜 안 뽑아 주냐고요, 뭐가 무서워서.

○박은정 위원 뭐가 무서워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세요!

○신동욱 위원 지금 무슨 회의 방해를 해요!

○이성윤 위원 좀 들어 보세요!

○김용민 위원 적어도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니 이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동의한다면 뭐가 무서워서 간사를 안 해 주냐고요.

○박은정 위원 뭐가 무서우세요, 뭐가!

○서영교 위원 징계해 주세요!

○신동욱 위원 나경원이 무서운 거지.

○김용민 위원 그리고 지금 야당이 간사 선임을 안 하고 있다라고 불만을 표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여당 내부에서도 논의가 나왔던 것은, 제가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새로 사보임돼서 오신 위원님이 과연 이 법사위에서 활동하시는 게 적절한 것인지, 이해충돌은 없는지 이런 논의들이 저희 내부에서도 강하게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아주 적절하지요. 박범계 간사님이 그 전례를 보여 주셨어요.

○김용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야당 원내에서 재고하셔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원 위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신상발언권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특정하지 않았습시다.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합니다.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지금 김용민 위원이 이해충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상발언권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특정하지 않았습시다.

○위원장 추미애 경고합니다. 송석준 위원님과 신동욱 위원님께는 경고합니다. 지금 김용민 위원의 토론 발언에 대해서 계속 송석준 위원님은 2회에 걸쳐서 방해를 하셨고 신동욱 위원님은 1회에 걸쳐서 방해를 하셨습니다.

○나경원 위원 토론도 방해입니까? 신상발언권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방해하지 않도록 원만한 회의 진행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국회법 147조에는 의원은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국회법 제147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조항을 어기셨습니다.

○송석준 위원 소란 행위 안 하도록 정상적인 법사위 운영을 해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경고 1차 했습니다. 만약 또 한 번 회의를 방해할 시에는……

○송석준 위원 퇴장시키시려고?

○위원장 추미애 지금도 위원장의 발언을 중단시키거나 방해하고 계십니다. 경고합니다.

○송석준 위원 저 경고하시고 퇴장시켜도 좋은데 간사 선임 먼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렇게 중진이 되셔 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초선 의원 하듯이 회의를 운영하는 겁니까? 나경원 위원이 그렇게 무서우세요?

○위원장 추미애 위의 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는 위원장은 발언하는 것을 당일 회의에서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라고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송석준 위원께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송석준 위원 제가 충분히 경고받겠습니다. 그렇지만 간사 선임부터 해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회의를 방해하시면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나경원 위원 신상발언권 주십시오, 신상발언권.

○송석준 위원 간사 선임부터 해 주세요. 간사 선임 안 하면 우리가 알아서 나갈 거예요. 이런 회의는 더 이상 우리가 참여할 가치가 없어요.

○이성윤 위원 조용히 좀 하세요. 회의 좀 하게, 회의 좀!

○김용민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이게 뭐 대단한 회의라고 발언권 한 번 안 주는 이 회의를 퇴장을 가지고 협박을 해요?

○송석준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은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이렇게 간사 선임을 안 하는 거예요?

○이성윤 위원 회의 좀 하자고요!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토론……

○위원장 추미애 토론 종결 동의를 있으므로……

○신동욱 위원 이게 뭐가 대단한 회의라고……

○박은정 위원 상임위 회의가 안 중요합니까? 상임위 회의가 안 중요하냐고요. 그런 말이 말이 됩니까?

○조배숙 위원 간사 선임 기본적인 거예요.

○장경태 위원 나경원 위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접견 기록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나경원 위원은 법사위원 자격이 없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자, 그러면 다시……

○조배숙 위원 신상발언도 안 주면 안 되지요.

○위원장 추미애 앉으세요. 나경원 위원님 앉으세요.

- 송석준 위원 우리 그냥 나갈게요. 자발적 퇴장할게요, 이렇게 하면.
- 조배숙 위원 신상발언 주세요, 신상발언을.
- 위원장 추미애 신상발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 조배숙 위원 왜 안 주냐고요, 신상발언을?
- 위원장 추미애 지금 신상발언할 시간이 아니구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나경원 위원이 그렇게 두려우세요? 국민들이 지켜보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차분하게 얘기 들어 주세요.
- 박은정 위원 본인이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토론 신청 발언을 받기로 했습니다.
- 송석준 위원 차분하게 얘기 들어 주세요.
- 위원장 추미애 앉으세요, 앉으세요.
- 이성윤 위원 앉으세요, 회의 좀 하게요!
- 송석준 위원 신상발언 들어 주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 위원장 추미애 앉으세요.
조배숙 위원님, 앉으세요.
송석준 위원님, 앉으세요.
- 송석준 위원 예, 앉을 테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들어 주세요. 너무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 박은정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 장경태 위원 간사 선임의 건은 제가 반대토론하겠습니다, 그러면.
- 송석준 위원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 장경태 위원 두려운 게 아니고 반대토론하겠습니다.
- 위원장 추미애 차분하게, 앉으세요. 앉으세요.
- 송석준 위원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예요, 부드러운 여자. 나경원 대표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 위원장 추미애 송석준 위원님, 덩치 자랑하지 마시고 앉으세요.
(장내 소란)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민의힘 위원님께 한 분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송석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신상발언 아닙니다. 토론입니다.
- 송석준 위원 나경원 대표 먼저 해 주시면 안 되나요?
- 위원장 추미애 신상발언 아닙니다. 토론입니다.
- 나경원 위원 토론할 테니까 주세요.
-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나경원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의제 외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 나경원 위원 제가 법사위에 와서 보니까 정말 이게 국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추미애 의제 외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 나경원 위원 국회는, 의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이것도 위원회의 위원

발언권을 침해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국회법에. 국회법 60조에 보면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제에 대해서 횡수 및 시간의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검찰청 얘기로 바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시는 것 좀 들어 보십시오.

저는 사실은 그래도 추미애 위원장께서 6선 의원이시고 또 지난번에 국회의장도 하시려고 했고 의회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의회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선 의원님 이야기를 한 것은 조선 의원님들은 의회 관행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회 관행은 그동안 합의가 가장 우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법에는 협의하라고 되어 있고 합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번의 의사일정도 당연히 우리 여야의 협의를 거쳐서 의사일정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처음의 의사일정에는 분명히 간사 선임의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간사 선임의 건이 빠집니다. 이게……

○김용민 위원 사보임이 안 됐잖아요.

○나경원 위원 아니지요. 사보임은 어제 허가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장으로부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맨 처음에는 간사 선임의 건이 있다가 그다음은 간사 선임의 건이 없어요. 지금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위원장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국회 운영 보셨습니까, 여러분?

추미애 위원장님, 6선 의원 하시면서 이렇게 국회 운영이 된 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간사 선임은……

○박은정 위원 공청회 토론하세요, 공청회.

○나경원 위원 김용민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김용민 위원, 협의를 누구랑 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간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안건에 대해서도 당연히 토론은 무제한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제대로 토론권을 주십니까?

○박은정 위원 지금 하세요, 지금.

○나경원 위원 저는 도대체,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한마디로 이것이 바로 국회 독재다. 그러니까 의회 독재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마음대로 다 차지하고 나서 법안을 이렇게 통과시킨다?

그다음, 제가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도 깜짝 놀랍니다. 이게 왜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입니까? 이게 검찰개혁 법안입니까? 이것 가치중립적인 단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 관련법이지 이게 어떻게 검찰개혁법입니까? 우리는 검찰장악법, 검찰해체법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위원님, 이성운 위원님, 다 검찰 출신들 아니십니까? 이것이 정말 검찰개혁법일까요? 검찰장악법, 검찰해체법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앞으로 이것을 무슨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라고 이렇게 나오지 마십시오. 이것은 검찰 관련 법안 공청회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할 때 우리하고 어떤 협의도 없이 박형수 위원님도 통보만 받았습니까, 통보만. 도대체 무슨 협의가 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회 운영해도 됩니까?

- 박은정 위원 나경원 위원, 윤석열 면회는 왜 갔다 오세요?
- 이성윤 위원 공소취소 청탁은 왜 하셨어요? 왜 또 기소해 달라고 청탁했어요?
- 나경원 위원 여러분, 무슨 내란, 공소취소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빠루 재판. 여러분, 피고인 6년 하는 박범계 의원도 법무부장관, 법사위 간사 다 했습니다.
- 이성윤 위원 왜 빠루 얘기하십니까? 누가 했어요?
- 나경원 위원 빠루는 당신들이 들고 옵니다. 당신들이 휘두른 겁니다. 민주당이 빠루 폭력을 해 놓고 누구한테 빠루 폭력을 했다고 뒤집어씌웁니까? 적반하장, 이게 바로 당신들한테 할 얘기입니다, 여러분. 적반하장.
- 서영교 위원 우리한테 ‘당신들’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어요?
- 이성윤 위원 ‘당신들’이 뭐예요! ‘당신’이라니 뭐예요?
- 곽규택 위원 ‘자’보다는 낫지! ‘자’보다는 나아!
- 신동욱 위원 ‘자’보다는 낫지, ‘자’보다는. 아까 ‘자’라며.
- 이성윤 위원 ‘당신’이 뭐예요, ‘당신’이.
- 곽규택 위원 ‘당신’은 높임말이야!
- 나경원 위원 민주당 위원님들!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
- 서영교 위원 공수처법을 방해해서 생긴 일이잖아요.
- 박은정 위원 존경 안 하셔도 돼요.
- 나경원 위원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 한번…… 이 국회가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여당·야당은 바뀌는 겁니다, 여당·야당은 바뀌는 겁니다. 다수당·소수당도 바뀌는 겁니다, 다수당·소수당도 바뀌는 겁니다. 국회 운영은 국회법에 따라서……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그리고 국회 관행에 따라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 그러면 추미애 위원장께서는 간사 선임을 해 주십시오. 간사 없이 위원회가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간사 선임해 주시고요.
- 이런저런 이야기로 지금……
- 이성윤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 박은정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 이성윤 위원 위원장님, 토론을 종결해 주십시오.
- 박은정 위원 비교섭 토론 안 했습니다.
- 나경원 위원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

-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발언 중에 계속 끼어든 박은정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 경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추미애 박은정 위원님과 이성윤 위원님, 타인의 발언 중에는 발언을……
- 박은정 위원 신동욱 위원도 했습니다.
- 위원장 추미애 아까 경고했습니다.
- 박은정 위원 두 번 해 주세요, 두 번.

○위원장 추미애 박은정 위원님과 이성윤 위원님께도 경고합니다.

타인의 발언 중에는 방해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 초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가만히 있어요? 초선이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박은정 위원 저 토론 안 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진짜 토론 한번 할 테니까 토론 기회 한번 주세요. 제가 의사진행성이 아니고요 안전에 대한 진짜 토론 좀 할게요.

○위원장 추미애 박균택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교 위원 이성윤 위원이 토론 종결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아, 예.

이성윤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석준 위원 우리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토론시간 더 주세요.

○나경원 위원 간사 선임을 안 하는데, 나갑시다.

○곽규택 위원 나가시지요, 나가시지요.

○신동욱 위원 간사 선임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다시 와서 응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간사 선임을 해 주시지요.

○이성윤 위원 간사 자격이 없어요. 초선 의원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여기 계획서에도 보면 간사들 서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곽규택 위원 초선, 똑바로 합시다. 초선, 똑바로 해! 초선이면 다 초선인 줄 알아?

○박은정 위원 사과하세요.

○곽규택 위원 간사도 못 뽑게 하고 말이야!

○송석준 위원 여기 간사 선임이 안 되면 이 계획서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박은정 위원 사과하시라고!

○서영교 위원 왜 이렇게 말이 짧지?

○곽규택 위원 ‘자’라며! 계속 ‘자’라고 불러! 짧은 말든!

○서영교 위원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군. 무례하기 짝이 없어.

○송석준 위원 이 계획서에 보면 간사 간 협의한다는 문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사를 선임 안 하면 이 안전의 상징 의미가 없어져요. 이것 지금 여기 계획서에도 간사 간 협의가 나오잖아요. 간사 선임해야 지금 이 안전이 제대로 성립이 되는 것 아닌가요?

저 퇴장시켜 주세요, 저 세 번째 경고 줬으니까. 간사 선임 제대로 해 주세요. 간사 선임을 해야, 계획서에도 나오잖아요. 간사 간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간사 없는 상태에서 이것 통과시켜도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은 불인 계획서예요, 불인 계획서.

○전현희 위원 다른 사람을 간사로 하세요. 교체하세요.

○이성윤 위원 간사를 교체해 주세요.

○신동욱 위원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간사 없는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합니

까? 아무 일정 협의가 안 되잖아요, 지금.

○박은정 위원 윤석열 내란 옹호한 사람을 어떻게 간사로 합니까?

○신동욱 위원 아이고, 좀 그만하고, 내란 얘기 그만하시고. 내란 얘기하더라도 간사는 있어야지요.

○박은정 위원 나경원 위원이 내란 옹호하셨다고요. 윤석열 탄핵 반대하고 내란 옹호한 사람을 어떻게 간사로 선임합니까?

○송석준 위원 안건을 간사 간 합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간사 없이 이 계획서 통과 시키면 이것은 불인 계획서입니다, 불인 계획서.

○위원장 추미애 앉으세요. 앉으세요, 일단.

○신동욱 위원 간사를 선임해 주셔야지 앉지요. 나갔는데…… 한다고 약속을 하셔야지 앉지요.

○위원장 추미애 앉으세요.

그러면 일단 신상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각 당에 한 분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석준 위원님, 3분만 하십시오. 3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제가 참 추미애 위원장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정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께 뭔가 추미애 위원장님의 새로운 면모가……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도 엄청난 실망과 뭔가 기대를 저버리는 듯한, 실망을 주시고 기대를 저버리는 듯한 모습이라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게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라고 했어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데 아까 나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그 검찰개혁을 일각에서는 검찰 해체, 그야말로 검찰 죽이기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진작부터 이렇게 공청회도 하고 제대로 여야 간 충분히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지요,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니까.

그런데 지금 도대체 검찰개혁이라는 이 공청회를 왜 하는 겁니까? 이것 누가 시켜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그나마 시키지 않았으면 안 하고 그냥 막 밀어붙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우리 법사위원회는 우리 대한민국국회의 거의 상원에 준하는, 여러 가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잘못된 법률도 바로잡아야 되고 또 우리가 여기서 처리하는 법안은 가장 우리 헌법질서에 맞아야 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구현되는 지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거쳐서 논의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동안도 계속 무시돼 오면서 일방적으로 운영된 법사위인데 여러 분들께서 이제는 여당 위원이 돼서 법사위원장도 되셨고 또 법사위원들이 되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동안에 무질서한 난장판,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사회에 있을 수 없는 비상계엄까지 터진 것 아닙니까? 우리 법사위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그야말로 줄탄핵, 소위 말해서 있을 수 없는 수사 중인 검사 간부 3명을 동시에 탄핵하는 이러한 무질서한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당이 되셨으니까 좀 성숙된 법사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여러 가지 내부에서도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나경원 위원이 결국은 사보임 돼서 우리 법사위로 왔지 않습니까? 인사도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요건이 됐으니까 이

제 정상적인 법사위 운영을 위해서도 나경원 위원을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고 또 우리가 요청을 했으니깐 바로 위원장님께서 정상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선임을 해 주셔서 원만히 회의를 풀어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지금 신상발언입니다.

지금 막 사보임되신 나경원 위원이 위원장에게는 ‘6선씩이나’라고 발언을 하시고 또 초선 의원에 대해서도 마치 자격이 미달되는 것처럼 발언을 하셨습니다. 심히 유감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아마 박은정 위원께서 신상발언을 아까 요청하셨는데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이렇게 상황을 만들지를 말아야지. 무슨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장경태 위원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가시는 거예요?

○박은정 위원 저는 5선 나경원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는 22대 국회의 초선 의원으로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법사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이 그동안 윤석열 탄핵 이후에 탄핵 반대 발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받는다’, 탄핵의 부당함을 알리는 공개 의총도 제안을 하시고 ‘탄핵 반대가 잘못된 것이냐?’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은 중대 흠결이 있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된다’, ‘내란 공작 특검이 필요하다’, 윤석열 탄핵 내란죄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가 지금 내란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런 등등의 윤석열 탄핵 반대와 내란 옹호를 하시는 발언 그리고 12월 3일 내란 당일 윤석열과의 통화 그리고 끝끝내 비상계엄 해제에 국회에 나타나지 않으신 그 태도, 그런 모습 속에서 무슨 5선 의원으로서 자랑스러우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그런 의원이 왜, 왜 국회 초선 의원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왜 말하느냐라는 태도로 저렇게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실 수 있습니까? 저는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나경원 위원이 법사위원 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란 특검의 수사받아야 되는 분 아닙니까? 왜 윤석열과 내란의 밤에 통화하셨습니까? 그런 등등 포함해 가지고, 법사위에 왜 오시는 겁니까? 간사는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 간사를 하십니까, 법사위에 오셔서?

저는 나경원 위원이 윤석열 탄핵 반대하고 관저에 가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사과와 함께 오늘 초선 의원에 대해서 하신 그런 막말에 대해서도 사과하시고 그리고 이 법사위에 들어오시면 사과를 하신 다음에야 법사위에 들어오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위원님 지금 나가셨는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위원 같은 저런 분 때문에 지금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고 검찰개혁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이 왜 내란까지 일으킨 그러한 절대권력이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개혁 공청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또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김기표 위원 (손을 들)

○장경태 위원 위원장님, 이 의제와 조금 다르긴 한데 어떻게, 언제쯤 기회를 주실 수 있으신가요?

○김기표 위원 신상발언……

○위원장 추미애 신상발언, 잠깐만요.

그러면 김기표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으니까 김기표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국회에 와서 참 충격적인 발언을 듣네요. ‘조선 의원은 조용히 해라, 뭘 안다고’ 이렇게 하고 ‘당신’ 이런 표현을 쓰는 광경을 오늘 맞닥뜨립니다. 5선 의원이나 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나 보지요?

저는 그런 말씀 속에서 철저하게 배어 있는 그분의 권위주의를 봅니다. 이렇게 같은 동료 국회의원한테 ‘너 조선 의원이니까 조용히 해, 뭘 안다고’ 하는 사람이 일반 국민들을 대할 때 일반 국민들에 대한 마음가짐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12·3 내란은 그런 의식들을 가진 사람들의 그룹에서, 무리에서 나온 결과물이고 그런 의식이 모여서 이루어진 참담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2·3 내란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난 3년간 정권을 잡고 국가를 운영해 왔는데 국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었겠습니까? 저렇게 권위주의로 똥똥 뭉친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조선이든 5선이든 3선이든 재선이든 다 그 지역구민들이 민의로 뽑은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을 뽑아 준 그분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의 일부만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일을 하는 것을 감안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조선 의원으로서 가지는 어떤 참담함이 아니고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참담함입니다.

그래서 나경원 위원이 그동안 개인적으로 가졌던 어떤 이력 그런 것 때문에 법사위 위원이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가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간사는 더더욱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이미 오늘의 발언으로서도 실격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간사가 어떻고 하는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거두어들여야 될 것 같고, 정말 법사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 그리고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을 다시 뽑아서 간사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경원 위원의 발언은 본인이 왜 법사위 간사가 될 수 없는지를 스스로 증명한 발언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장 사과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태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에 준해서……

○위원장 추미애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 위원장께서 허락해 주시면 공청회 의제와 더불어 간사 선임의 건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상임위 운영 과정에서는 간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당의 간사 내정과 위원장과 의사일정을 협의합니다. 그런 부분은 양당의 어떤, 여러 교섭단체 간의 양해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정식 간사로서 의사일정을 논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요구의 건은 아마도 위원장께서 간사와 협의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현재 현존하는 간사는 1명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경원 위원께서 또 한 번의 흑역사를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망언을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지적할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나경원 위원님 다선이니니까 외통위에 가서서 국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법사위에 오셔서 사익 증진의 장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더구나 간사까지 탐내실 줄이야, 5선이나 되셔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발언도 오늘 너무 망언을 하셔서 황당한데 ‘조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이 발언은 정말 국민의힘에 계신 광규택 조선님, 박준태 조선님, 신동욱 조선님, 주진우 조선님께서 오히려 더 앞장서서 규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법사위 산회 전에 꼭 사과하지 않으시면 아마 더 상황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나경원 위원은 본인이 지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라고 저는 표현하려고 했습니다만 빠루 사건이라고 본인이 표현하셨기 때문에 인용하겠습니다. 빠루 사건에 6년째 피고인 신분으로 1심조차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당시 특정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서 국회를 점거하고 물리력으로 법안을 접수하고 회의 개최를 방해한 사실들이 있고요. 1심조차 안 난 사건에 대해서 24년 7월 17일 CBS 방송에서 한동훈 장관…… 후보 측이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 달라고 부탁했다’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관저에 가서 머리를 숙이더니 내란의 밤에 윤석열과 통화한 내란 모의 혐의가 있는 자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집권 기록에 서울구치소에서도 나경원 위원의 이름이 다수 발견됩니다.

이렇게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경원 위원이 어떻게 이 법사위의 간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간사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요. 만약 법사위원이라도 하고 싶으시면 일단 조선 망언에 대한 발언은 사과하시고 간사가 만약 하고 싶으시다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자수하시고 반성하시고 사과하시고 내란 수괴 윤석열과 어떤 내란 모의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을 저는 반대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왜 나경원 위원이 국민의힘의 법사위 간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왜 반대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나 도의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법사위 간사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당시에 법안 접수와 국회 회의 개최를 방해한 의혹으로 나경원 위원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감금 및 공동퇴거불응 등 폭처법 위반,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입니다. 스스로 국회의 질서를 방해하고 입법부의 권능을

훼손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과연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공소취하를 청탁한 의혹까지 제기가 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일반인들은 꿈도 못 꿀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공소취하를 청탁한 것은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의식을 보여 준 사례이고 불법적 청탁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경원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윤석열과 통화도 하고 그리고 서울구치소에 내란 수괴 윤석열을 면회하고 접견한 기록까지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민주당 위원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국회의 담장을 뛰어넘어서 부상까지 입고 계엄 해제를 할 그 당시 나경원 의원은 국회 문밖에서 돌아가면서 계엄 해제에 불참을 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와 내란에 사실상 동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당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회의원 40인 중의 1명입니다. 법치주의 훼손과 헌정질서를 파괴한 당사자입니다.

내란 동조 의혹과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그런 당사자가 간사가 된다면 법사위는 내란 청산은커녕 내란 변호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경원 의원은 원칙적으로 법사위 간사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전에 우선 국민들에 대해서 헌정질서 파괴 행위와 법치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서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간사 재지명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 우리 나오니까 그냥 돌아가면서 발언을 하시네. 우리 들어오면 토론 중결하고 우리 나오면 다 돌아가면서 하고.

○**이성윤 위원** 계속 계시지 왜 들어와요?

○**송석준 위원** 균등하게 공평하게 진행합시다.

○**나경원 위원** 우리 발언권 주십시오.

(장내 소란)

○**신동욱 위원** 저쪽에서 발언 다 하셨으니까 저 발언권 먼저 주세요.

○**주진우 위원** 저도 발언권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우리 발언권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 발언했잖아요.

○**장경태 위원** 내란 모의 공모 혐의가 있는 자가 어떻게 법사위 간사를 합니까?

○**신동욱 위원** 이렇게 사이좋게 발언권 주셨잖아요.

○**박은정 위원** 발언하셨잖아요.

○**장경태 위원** 윤석열 접견 기록이 다수 발견됐는데, 서울구치소 왜 가셨어요? 관저 앞에 왜 가셨어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주진우 위원** 발언권 주세요. 공평하게 줘야지요.

○**나경원 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민주당 위원들 다 했으니까 발언권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발언하셨잖아요. 나경원 위원 발언하셨는데 뭘 또 하십니까?

○**신동욱 위원** 아니, 우리 없으면 이렇게 발언을 원만하게 운영하시면서.

○이성윤 위원 뭘 또 발언을 해요?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정회해 주시지요. 회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정회해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 정회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우리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님.

○주진우 위원 발언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박은정 위원 발언하라고 할 때는 왜 안 계시고 이제 와서 발언권 달라고 그러세요?

○곽규택 위원 그 목소리 듣기 싫어서 그랬어요, 왜?

○박은정 위원 목소리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동욱 위원 아니, 있건 없건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집에 간 것도 아닌데? 다 들었어요, 하시는 말씀. 발언권 먼저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민주당 위원들 발언권 줬으니까 발언권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회의장이 장난감입니까? 왜 왔다 갔다 하십니까?

○나경원 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제가 신상발언을 드렸던 것은 여야 공정하게, 각 교섭단체별로 공정하게 드렸습니다.

위원장도 대단히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고 또 이 자리에 많은 초선 의원이 계십니다.

○나경원 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장내 소란)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께서 사과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까 김기표 위원께서도 나경원 위원에 사과해 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사과 발언 하시겠습니까? 신상발언 드리면 사과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나경원 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발언권 주세요. 위원님들 발언권 주세요.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님들.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이 법사위는 전투장이 아닙니다. 개인이 마음대로 우리 위원들에게 ‘당신’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하시고 초선 의원이 마치 이 자리에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듯이 함부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위원장으로서는…… 나경원 위원에 먼저 사과 표명을 하셔야 될 사안입니다.

사과를 하지 않겠다면 더 이상…… 발언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민주당 위원들은 발언을 다 하고, 위원장이 민주당 위원들은 발언을 하고 우리는 발언권을 안 줘니까?

○곽규택 위원 토론 종결할 수가 없어요! 야당한테 한 명 토론을 줘야 돼, 토론을 하려면.

○나경원 위원 발언권을 안 주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장내 소란)

○위원장 추미애 이 안전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을 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나경원 위원 발언권 주세요.

○곽규택 위원 뭘 일방적으로 토론 종결해요? 토론 기회를 주셔야지.

○위원장 추미애 토론 신청하는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이성윤 위원 토론을 종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이성윤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 안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규택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 등으로부터 찬성 동의를 있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회의 진행하시면 어떡해요?

○나경원 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위원장 추미애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주진우 위원 발언권도 안 주고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경원 위원 아니, 발언권을 안 주고, 우리 나가면 마음대로 하고……

○박은정 위원 아까 발언을 했어야지요.

○곽규택 위원 하나 마나 한 회의를 왜 해요, 그러면?

○나경원 위원 우리 나가면 마음대로 하고, 이게 국회 운영입니까?

○위원장 추미애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곽규택 위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추미애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장내 소란)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를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부 위원 퇴장)

2. 서류제출요구의 건

(11시23분)

○위원장 추미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은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첫째, 피고인 윤석열은 구인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된 절차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일삼고 공무집행을 노골적으로 방해했습니다. 둘째, 변호인 접견장소를 위반하는 등 수용 규칙을 어기고 변호인을 동원해 집행을 방해한 사실 또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셋째, 서울구치소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금지된 심야 접견을 비롯해 각종 특혜가 제공된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법 집행을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계엄 당시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서슴지 않던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이 자신을 체포하려는 교도관들을 향해 ‘공무원 아니냐,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자신을 체포하라는 부당한 명령은 거부하라’라는 뻔뻔한 태도마저 보였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특혜를 받으며 법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법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꿈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전은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9월 3일까지 제출할 것을 법무부 서울구치소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서류제출요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전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익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지원 위원 끝났으면 제가 발언 좀 주시면……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발언 신청해 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우선 법사위원들이 수고하시는데 저는 정보위가 열려 가지고 중대한 보고를 받고 있어서 늦게 온 것 사과드립니다.

‘나빠루’, 5선 의원이 초선은 아무것도 모른다, 국회의원은 군번도 없고 병과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5선 의원이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자고 했더니 나왔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정보위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나올 때 이걸 꼭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십시오.

청와대 대통령실 김태효 안보1차장이 당시 김규현 국정원장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공작비 1억 7000만 원을 김규현 국정원장이 유용해서 김태효 1차장에게 갖다준 일을 제가 질문했더니 지금 이종석 국정원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보고하겠다 하는 것 보편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검찰에, 즉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 즉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박지원 원장이 삭제 지시를 안 했다. 그리고 삭제했다는 모든 문건을 지금 현재 국정원 직원들이 가지고 있고 메인 서버에도 다 있는데 이 자료를 우리 변호인이 요구해도 주지를 않고 검찰에 전 국정원장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법무부장관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다음, 이성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저는 정보위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이성운 위원 아까 나경원 위원 간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나경원 위원 간사를 지정한 의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나경원 위원은 다들 알다시피 한동훈 장관에 자기 패스트트랙 사건을 공소취소해 달라 청탁을 해 가지고 이 사실을 공개하는 바람에 크게 또 비난을 받았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이 법사위를 소관 위원회로 선택한 이유가 이뿐이 아니고 과거에 나경원 위원의 남편이 검찰에게 나경원 위원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린 사람을 고발해 달라고, 기소해 달라고 청탁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2년에 이 자리에 계신 한 위원님의 양심선언으로 의혹이 제기됐고, 이렇게 자기 공소 중인 사건을 취소해 달라고 하고 또 기소 청탁까지 한 사람, 의혹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법사위 위원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나경원 위원의 패스트트랙 사건이, 빠루 사건이 올해 9월 중순에 종결된다고 합니다. 저는 나경원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법사위에 온 것, 그것도 간사로 오려는 이유가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 아니냐, 과거에 공소취소 청탁하고 기소 청탁한 의혹이 있는 위원이 이번에는 자기 재판 종결을 앞두고, 1심 재판이 무려 5년 8개월 만인가 끝납니다. 역대 최장, 최대로 끝났던 사건인데 이제 그 재판 종결을 앞두고 법원이나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사 자리로 들어오

려고 하는 것은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충돌이라고 생각하고요.

나경원 위원이 법사위 간사로 오는 것은 정말 맞지 않고 이번에 간사로 내정한 국힘에 서는 간사를 취소해야 되고 우리 법사위에 와서 간사로 활동해서도 안 되고 법사위 위원 자격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나경원 위원 간사를 반대하고 또 오늘 조선 의원 상대로, 저를 상대로 ‘조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정말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오만한 국힘의 행태를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씁쓸했고 ‘이러니까 내란을 일으켰구나, 이러니까 국민들을 무시하는 노상원 수첩 같은 일이 벌어지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나경원 위원 같은 사람이 법사위에 와서도 안 되고 더군다나 법사위 간사가 된다는 것은 강력히 반대하고 국민들도 반대할 것입니다. 나경원 위원이 법사위 간사로 오는 것을 꼭 막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저도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재판이 아주 속도가 느립니다. 아마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그것을 기화로 마치…… 즉시 계엄 해제도 하지 않고 또 특히 윤석열의 계획대로 비상입법기구가 만들어졌더라면, 국민이, 시민들이 저항을 해서 온몸으로 막아 내고 또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하지 못했더라면 오늘의 이 국회 법사위 회의도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계엄 해제하러 오다가 다시 내뺄버린 의원이 와서 법사위 간사를 맡겠다고 하고 있고 마치 이 민의의 전당에서 본인들이 가장 안방을 차지해야 될 것처럼 큰소리치는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보고서 저도 참으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회의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의제가 올라오면 간사가 동의해 준 바가 없다는 등 하다가 갑자기 간사를 바꿔치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법치를 가장 먼저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 본질적으로 훼손하려고 했던 것이 내란이고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그 비상계엄에 사후적으로 발맞추어 주고 협조해 주고 드디어 내란재판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이곳에서 위증한 사람들을 고발조치를 하더라도 마치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이 세력들을 보면서 참으로 비상한 마음을 먹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참담함을 극복하고 인내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앞으로도 험난하고 또 여러 고비를 많이 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우 입구를 열었고 앞으로 있을 검찰개혁 공청회가 아무쪼록 국민의 많은 우려를 우리가 녹여내고 또 안심시켜 가면서 검찰개혁을 완수해 내는 그런 점점을 하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나경원 박균택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서영교 송석준
신동욱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조배숙 주진우 추미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이은정